

민주, 공허한 쇄신론…차기 지도부 선출 놓고 파열음

비대위원장, 재선·초선의원 모임

너도 나도 “철저한 혁신만이 살 길”

친문 책임론·퇴진론 놓고 갈등 표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재보선 참패에 따른 위기감 속에 쇄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거 패배 원인 진단과 쇄신 방향, 차기 지도부 선출 등을 놓고 노선 갈등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처럼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이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혁신 드라이브=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갖고 “민주당의 성과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것처럼, 패배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비대위는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닌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며 혁신하는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진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의 모습대로라면 내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겠다는 것이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철저한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도 이날 오전 여의도 컨벤션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4·7 재보선거선거 참패 원인을 찾고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은 작년 이후 처음이다.

좌장을 맡은 김철민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재선 의원 모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1년 전, 저희에게 많은 응원과 함께 힘을 모아주셨다”며 “하지만 불과 1년만에 정부와 여당은 오만하고 위선적이며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차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부족했고, 정치개혁 과정 속에서 민생에 소홀했으며,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정정당당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선 의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초선 의원들이 지적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인식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 등 2030 청년 의원들은 각각 입장문과 성명을 발표하며 재보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패에 따른 당 쇄신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할 용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친문 책임론에 파열음=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성과 쇄신에는 공감하지만 책임론을 두고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친문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 부족했다”면서도 “검찰개혁의 문제를 조 전 장관의 개인적 문제와 연결해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경협 의원도 라디오에서 “조국 문제는 총선 때 이미 평가받은 사안”이라고 일축한 뒤, 보궐선거 공전을 맡았어야 한다는 초선들의 주장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류인 친문 진영의 2선 후보론을 두고도 이견이 표출했

다. 핵심 친문으로 꼽히는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패배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당내 대표적 비주류인 조웅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 나물에 그 밥 그대로 가면 앞서 죽는다”고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라디오에서 재보선 책임론과 관련해 “그분들이 ‘아, 내 얘기인가?’라고 아실 것”이라며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친문 퇴진론과 관련, “평가라기를 하지 말라”는 홍영표 의원의 언급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삼가야 한다. 당의 행로에 주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변경한 것을 놓고 당무위 의결까지 거친 사안을 강성 당원들에 밀려 반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정무수석 ‘비문’ 이철희 내정

문 대통령 주 중 靑 참모진 개편

선거 참패 위기감…인적쇄신 돌입

김외숙 인사수석 교체 대상 오를 듯

비서관급도 교체…다수 물갈이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최재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일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2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수석급을 포함한 일부 참모진에 대한 교체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단행할 것”이라며 “재·보궐선거 참패 후유증 속에 쇄신 의지를 보이고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개각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국회 대정부질문(19~21일) 일정과 맞물려 개각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참모진 교체를 먼저 단행하는 방안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으로는 최재정 정무수석이 우선 거론된다. 지난해 연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후임 물망에도 올랐던 최 수석은 이번 재보선 전에도 피로를 호소하며 물러나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하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

로 전해졌다.

신임 수석으로는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비례대표로 영입한 인사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고 정치평론가로 활동해 왔다.

문 대통령이 영입했지만 이 전 의원은 ‘친문’(親文)과는 거리가 먼 ‘비문’(非文)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조국 사태’에 대해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정부적 감각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외숙 인사수석도 교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 수석은 2019년 5월 임명된 뒤 2년 가량 자리를 지킨 데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원칙이 다 무너졌다”고 공개 비판을 하는 등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서관급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사표를 낸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후임 인선과 함께 김상조 전 실장이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정철실을 중심으로 다수의 비서관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또 김광진 청년비서관, 배재정 정부비서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일부 비서관 개편으로 인적 쇄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지지율 33.4% 최저…국민의힘 39.4%·민주당 30.4%

리얼미터 여론조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자체 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3.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34.1%(3월 3주차)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상승한 62.9%로 조사

됐다. 이전 최고치인 62.5%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는 29.5%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

지역, 연령, 지지정당, 직업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충청권(2.5%포인트 ↑), 50대(5.4%포인트 ↑), 열린민주당 지지층(6.7%포인트 ↑), 가정주부(2.5%포인트 ↑), 자영업(1.5%포인트 ↑) 등에서 상승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호남권(3.5%포인트 ↑), 여성(1.8%포인트 ↑), 20대(6.1%포인트 ↑), 40대(5.0%포인트 ↑), 무당층(11.2%포인트 ↑), 중도층(1.7%포인트 ↑), 학생(4.4%포인트

↑) 등에서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9.4%를 기록하며 40%에 육박했다. 6주 연속 상승세로, 당 출범 이후 최고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포인트 상승한 30.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9.0%포인트로 4주 연속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최대 격차는 10.7%포인트 차(3월 4주차 조사)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수돗물

참!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

맑고 깨끗한 섬진강 수계인 동복호와 주암호의 청정 원수를 가져옵니다.

엄격한 수질검사를 통과한 명품 수돗물

먹는물 수질 법정기준의 4배 이상 항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똑똑하고 안전한 수돗물

최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수돗물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안내

고지서 분실 걱정 없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요금할인도 받으세요!

Q. 수도요금 전자고지란?	요금고지서를 카카오톡톡, 핸드폰문자, 전자우편으로 받는 서비스
Q. 요금할인제도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 후 종이고지서를 미수령하는 수용가에 부과요금의 1% 할인(200~5,000원)
Q. 서비스 신청방법은?	전 화 : 관할 지역사업소 신청 인터넷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신청(water.gwangju.go.kr)

문의사항 안내 062-121

- 동부사업소 062) 609-6500
- 서부사업소 062) 609-6600
- 남부사업소 062) 609-6700
- 북부사업소 062) 609-6800
- 광산사업소 062) 609-6900

2021년 “라벨없는” 친환경 빛여울수 생산

오직 깨끗한 물! 오롯이 광주시민에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